

현대패션의 신체부위에 따른 에로티시즘(Eroticism)표현에 관한 연구: 간접노출의 표현방법을 중심으로

최나리* · 우주형

인하대학교 의류학과 석사과정* · 인하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현대 패션에 섹시함을 강조하는 의상은 매 시즌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의상들은 신체의 일부분을 노출시키거나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의 신체 일부에 고정시킨다. 그리고 사람들은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성적매력을 느끼는데 이는 우리의 유전자 속에 남아있는 본성이기도 하며, 지금까지 사회를 통해 학습을 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성적 특성은 시대를 불문하고 여성 복식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부위가 바뀌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90년대 패션을 중심으로 에로티시즘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21세기초(2000-2004)를 연구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사람들이 에로티시즘을 느끼는 여성의 신체부위를 목과 어깨, 바디스(bodice)와 가슴, 배, 허리, 엉덩이, 팔, 다리, 총 7개 부분으로 나누어보고 이러한 신체부위들이 의상을 통해서 외부로 보여 지는 표현방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사람들이 신체의 한 부위가 살짝 노출된 모습에서 더욱 에로틱함을 느끼는 것을 기초로 간접노출에 대해 더 살펴보고자 하겠다. 나아가 이러한 표현방식들이 미래패션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자료로서 에로티시즘과 복식미학에 관한 전문서적과 논문 등의 문헌자료와 00-04년도의 패션전문지 보그(Vogue)와 하퍼스 바자(Happer's Bazaar)의 화보를 살펴보았다.

패션을 통해 몸을 표현하는 방식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직접노출, 간접노출, 강조 3부분으로 나누고 특정소재에 따른 표현방법도 알아보았다. 직접노출은 신체의 일부의 노출함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볼 수 있게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간접노출은 슬래쉬(slash), 슬릿 slit), 커팅(cutting), 시스루(see-through), 밀착 등을 통해 인체의 선을 드러내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강조는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에

로티시즘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00-04년도의 패션지의 화보에서 살펴본 결과 간접 노출을 통해 인체를 표현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간접노출 중 인체를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밀착을 많이 사용하였다. 밀착은 가슴에서부터, 배, 허리, 엉덩이, 다리에 이르는 몸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에로티시즘을 유발하였다. 다리의 경우 다양한 디자인의 스타킹과 몸에 밀착되는 팬츠를 입음으로서 여성 특유의 섹시함을 돋보이게 하였다. 밀착은 실크, 벨벳 그리고 신축성이 있는 소재를 사용한다. 팔은 시스루 소재로 처리함으로 섹시함을 주고 있다. 이러한 느낌의 소재는 네트 모양의 옷감, 투명 비닐, 레이스 등을 사용하며, 팔 뿐만 아니라 어깨, 가슴과 엉덩이 부분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가슴과 바디스는 주로 슬래쉬나 커팅을 이용하여 표현하였으며 슬릿은 스커트의 트임 등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한 시즌에 사람들의 집중을 받는 인체의 부위가 어느 한 부분으로 결정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패션의 유행속도가 매우 빨라졌고 종류도 다양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직접노출보다는 간접노출을 통해 섹시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완전한 나체보다는 신체의 한 부위가 살짝 노출된 모습에서 더욱 에로틱함을 느끼는 것과 일관성이 보여 진다. 21세기 초반 패션에 나타난 인체의 에로티시즘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흐름은 간접노출이 직접노출이나 강조보다 더욱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중, 후반에 패션에 나타날 섹시함은 슬래쉬(slash), 슬릿 slit), 커팅(cutting), 시스루(see-through), 밀착 등을 통한 방법으로 표현될 것이다. 에로티시즘을 단순한 노출과 성에 대한 표현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의복을 통해 인체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